

미래 일자리 구하기 위한 메가트렌드 보기(2)

박영숙 | (사)유엔미래포럼 대표

I. 들어가는 말

미래 직종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포괄적인 사고와 전문기술을 가지고 남과 함께 일하며 지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직적 명령체계가 아닌 수평적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좋고 남에게 양보를 잘하여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든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 경쟁력에서 이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남을 말을 듣지 않으며 남에게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팀워크, 프로젝트체제, 즉 전문기술에 역점을 두고 한 사람의 기술로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사람은 "질 줄 아는 사람"으로 포용성 있고 포괄적이거나 human skill, 즉 인간을 부추기고 칭찬하고 달래면서 그 사람의 주장에 따라 양보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CEO로 성공한다. 고급기술인력, 동기부여가 되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생산성이 높은 사람, 고품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채용될 확률이 높다. 평생교육을 통해 항상 새로운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모든 경영자나 기업총수들은 구조조정 및 다운사이징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고, 자리가 비면 채우지 않는다. 국장이나 실장 등 장 자리를 줄이고, 과장, 부장 등 매니저 자리를 없애면서 수평적 팀제를 활용한다. 기업

경영에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지우며, 노사관계 등으로 인력은 거의 아웃소싱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며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선, 어떤 전공, 어떤 분야에 뛰어 들어가 앞으로 직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단순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희망하는 다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유연성 있게 항상 업무수행 방법을 손쉽게 바꿀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손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기회가 오거나 운수가 좋으면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승진이나 경력을 취득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경력을 기획하여야 한다. 업무 중에 다양한 훈련이나 기술습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II. 각국 노동시장의 변화

1. 뉴질랜드

뉴질랜드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의 변화를 보자. 우선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며 미래의 직종에 대한 염려를 한다. 가장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직종이 사라지고 어떤 직종이 부상하나? 사생활과 일

에 대한 중요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미래에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을 다닐까?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비시켜서 좋은 일감을 찾도록 하나?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책이나 미래의 직종을 알려주는 작업을 노동부에서 한다. 앞으로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신하고 일거리가 없는 사회가 된다는 통설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단지 단순노동은 점차 줄어들고 첨단기술과 관련된 일거리는 늘어날 것이다. 국제화와 국경 없는 사회에서 일자리의 성격이 많이 변할 것이며 숙련공이나 전문가들을 더욱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신의 직장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국제노동연구소에서 "미래의 직장"이라는 발표문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파트타임, 임시직, 자영업으로 스스로 일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경우 등 종래의 기업체 근무보다 더 다양한 직종이 보편화된다. 노동의 유연성이란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를 희망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와 국제적인 인력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노동문화가 생긴다. OECD 국가통계를 보면 앞으로 10-20년 간은 퇴직하는 노동력이 신규 진입 노동력보다 훨씬 더 많다. 뉴질랜드에서도 퇴직 노동력이 2020년이 되면 더 많아진다. 10-20년 내에 45세 이상 된 노동력이 그 이하보다 훨씬 많아진다. 신규 진입하는 노동력이 감소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보다 더 직원들에게 유연성 있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훈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쉽지만 외국으로 전문가들을 잃을 확률도 많아진다. 더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 노령인구 도우미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손쉬워져 사생활과 일이 섞여 대체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 종래에는 종일직만 있어서 가정에서 쉬던 사람들도 파트타임 등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줄어든다. 파트타임, 임시직, 전화로 연결되는 직업, 계절 또는 계약직,

숙제처럼 집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일, 지하경제에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 다양한 목적으로 잠시 맡아 하는 일 등이 늘어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옮겨가는 사회에서 단순 노동력이나 단순 기술직은 사라지고 전자통신기술이 뜬다. 앞으로는 컴퓨터만 들여다보던 사람들에게서 글을 잘 쓰는 사람과, 숫자에 밝은 사람,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과 설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서 쉽게 출세할 것이다. 경영진 또한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사다리조직이 사라지고 팀장 등 단순한 조직으로 의사결정단계가 짧아 재빠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2. 미국

미국의 취업사이트에서는 일자리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민불만이 폭증한다. 미국의 노동부와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직업 상담사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10년 후 부상할 직업을 www.careervoyages.gov 에서 상시 업데이트하면서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노동성의 미래의 직종 개요를 읽어보면, 첨단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직종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령화로 고령화 상품이 잘 팔리고, 24시간 달는 핸드폰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주 40시간 근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에도 노동시장이 붕괴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OECD 노동시장에도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앞으로는 캐리어 즉 "한 분야의 오랜 경력"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며, 임금이나 월급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전화상담, 컨설팅 비용 등 시간 당 전문지식이나 노동력을 계산하는 것이 보편화된다. 전문기술직이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종래의 상하직위가 아닌 "편의성 직업"이라 하여 일거리가 있을 때 커미션으로 돈을 많이 받고 일거리가 없을 때 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일

과 오락, 휴가 등이 뒤섞여 새로운 일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충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변하는 경제는 기술개발과 국제화로 인해 제조상품과 제조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노동력도 바뀐다. 직장의 변화는 새로운 방법의 일자리 조직과 노사관계의 변화로 다양한 기업운영의 방법이 선보인다. 노동력의 변화는 고령화 사회, 국제적 노동이동, 다문화 사회로 변한다. 인구와 일과 삶의 형태변화로, 직장과 사생활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교육과 훈련에서는 미래사회는 전문직 고급노동력을 원하는 사회로 교육과 직업훈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산업화는 농업의 종말과 제조업의 부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첨단기술발달로 인해 생산성 증가가 인력의 감소로 이어졌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노동력 감소가 이루어졌다.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재 소비가 늘어나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여 선진국에서는 노동력의 2/3이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되었다.

서비스 산업은 단순노동과 노동집약산업에서 정보산업까지 다양하며 최근에는 지식산업이 뜨고 있다. 교육, 건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부동산 기업경영 서비스, 레저와 오락, 대중문화서비스 등이 부상하는 산업이다. 특히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은 신속하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화이트 칼라 직업이 늘어나며 단순노동이 줄어들고 사무직이 줄어들며 정보화, 기술직이 늘어난다.

미국노동성의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ur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직종의 탄생이나 소멸은 인구, 노동력, 제품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수요가 있더라도 인구나 노동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조를 할 수 없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노동력을 끌어 모으고 훈련시켜 새로운 직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있는 곳에 노동력이 몰리게 되는데,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의 직종이 뜬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서비스 증가는 직업이 인구에 비례해서 생김을 알 수 있다. 미국인구는 오는 2012년에는 약 2억4천만인데, 미래 인구의 나이에 비례해서 직종이 생겨

나고 사라지게 된다. 2012년까지 16-24세까지 젊은 층 인구가 7% 증가하고, 현재 베이비붐세대는 고령화로 접어들어 55-64세가 되어 총 인구의 43.6%로 어느 층 인구보다 많게 된다. 대신 35-44세 장년층 인구는 감소한다. 미국 이민자들 중 히스패닉 계통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어느 다른 계통보다 많아진다. 2012년에 남성노동력은 10% 증가하지만 여성노동력은 14.3% 증가하여 남성노동력은 현재 53.5%에서 52.5%로 감소하고, 여성인력은 46.5%에서 47.5%로 늘어난다. 16-24세까지의 노동력은 2012년에 15%, 25-54세까지의 기본노동력은 70.2%에서 2012년에는 65.9%로 떨어진다. 그러나 5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현재 19.1%에서 14.3%로 증가한다.

미래에 뜨는 직종은 전문직 관련 업종의 3/4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며, 그 다음은 헬스케어 산업 분야이고, 그 다음은 교육, 훈련 및 도서정보관련 직종이다. 그러므로 전문직 관련 업종에 인력충원이 가장 많으며, 가장 대규모의 인력의 유입·유출이 예상된다.

1) 향후 부상 직종

(1) 서비스산업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는데, 미국에서 2012년까지는 총 2천1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중에서 서비스 산업에 2080만 개가 늘어난다. 서비스 산업의 직종은 더욱 더 다양해지는데, 특히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아동양육관련 숙제산업이나 아동의 장래를 설계해주는 아동미래디자이너, 베이비시터,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헬스서비스 및 재택도우미파견, 책임어주는 아르바이트와 노인과 여행을 함께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신종서비스가 개발 될 것이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으로 뉴 마크와 리드 박사(Neumark and Reed)가 전망한 것은 정보지식산업으로 신용카드사, 신용관리회사, 증권 및 상품중개사, 통신사 등이다. 하이테크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초중고등학교, 아동보육서비스 등이 부상하는 산업이 된다. 뜨는 산

업은 대부분 서비스산업인데, 인력공급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크게 뜬다.

(2) 교육과 의료 복지 서비스

컴퓨터 데이터 프로세싱,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다. 사립병원, 노인요양원, 개개인의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등이 32.4% 증가하면서 4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헬스케어와 사회복지분야의 팽창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이다.

사립학교서비스가 2012년에는 28.7% 증가하면서 7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오래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므로 교육산업은 부상하는 분야이다. 기술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항공기조종사가 유일하게 50대 고소득 직종에 들어간다. 총 일자리 증가중 23.3%가 전문직종이며 이 전문직종 중에서 컴퓨터나 수학과학 관련 직종, 헬스케어나 의료기기분야, 그리고 교육 직업훈련과 도서관 등 세가지 직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3) 전문직

전문직이 30.4%로 증가하면서 5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영직, 사무직, 환경미화, 업무개선 교육서비스 등의 전문직이 2012년까지 37% 증가하고, 가장 뜨는 직종이 취업알선서비스로 54.3%가 증가하며, 새로운 직종에 새로운 직업훈련 등과 함께 업무개선 서비스 등이 엄청나게 뜨는 직종이다. 그리고 전문직, 과학자, 전문기술서비스 분야가 27.8% 증가하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컴퓨터시스템디자인 관련 서비스업종은 특히 54.6%나 증가한다. 이는 각 기업에서의 정보화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컴퓨터 시스템유지보수 네트워크보안을 위해 상당한 인력을 고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영, 과학기술 컨설팅서비스도 엄청나게 뜨는 산업으로 55.4% 증가에 새로운 컴퓨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이를 활용하는 복잡 기묘한 비즈니스들이 개발되어 더욱 더 많은 컴퓨터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4) 정보화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화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변해가는 산업으로 2012년까지는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출판사, 인터넷출판, 방송통신, 인터넷서비스 등이 부상하게 되며, 웹서치 포탈, 데이터프로세서 서비스 등 이 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67.9%에 이르는 등 미래전망이 가장 높은 직종이다. 여기에 통신, 방송, 신문, 잡지, 서적, 주소록 출판과 무선, 케이블, 초고속망을 통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한없이 팽창한다.

(5) 뷰티, 레저와 관광산업

대중문화와 레저·레크리에이션 등은 2012년까지 28% 성장하게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테마파크, 도박장, 카지노,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몰릴 전망이다. 문화, 연예오락 등의 팽창 또한 소득증가로 인한 휴가일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람들이 즐거운 휴가를 떠나게 되거나, 체력단련 등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레스토랑, 바 등은 맛벌이부부의 외식 기회가 늘어나고 미식가들이 늘어나서 더욱 더 뜨는 산업이 된다. 뷰티션, 즉 메이커업 기술자, 피부관리사, 몸매관리사,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신종 직종이 탄생하여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벌어들인 돈을 쓰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고, 이들이 삶을 즐기는 장소에 많이 모여들게 되므로, 이 분야는 최대의 성장을 약속하는 미래산업이다. 관광산업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여행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다양한 체험관광이나 특별한 취미생활 등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관광은 늘어날 전망이다.

(6) 교역, 운송, 유지보수산업의 성장

2012년까지 14.1% 성장을 예상하는 운송, 도매상, 창고업 등이 부상되면서 육로(트럭) 운송은 늘어나지만, 기차나 해양운송은 감소한다. 특히 창고업, 도매업, 택배운송들은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는데, 현존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체 조달하는 창고나 운송을 아웃소싱하고 제조업 자

체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2012년까지 28.6% 성장하는 운송 창고업과 41.7% 성장하는 택배산업은 뜨는 산업이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들이 더 많은 제품을 소비하게 되어 제품 도매상 등도 11.3%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유지보수 직종은 공장 자동화 설비 등 새로운 시설장치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나는 분야로 특히 냉난방, 냉동시설 설치 및 유지기술은 31.8%나 증가하는 인기 직종으로 뜬다.

(7)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12.3%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렌트, 리스산업이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거주지 수요증가 때문에 각광받게 된다. 증권 보험 금융서비스도 15.5%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최고의 저축률을 보이면서 은퇴계획을 세우고 세금혜택 받는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서비스산업의 국제화도 그 이유다. 보험업은 약간 증가하고 금융브로커 금융서비스업체 등도 14.5% 정도 성장하는데 보험사가 상당의 직원을 감량하게 되면 보험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보험회사를 차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인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투자, 환율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수익을 디자인, 관리해주는 가족금융설계사를 두어 가족의 모든 재정문제를 맡게 된다. 이미 서구에서는 모든 가족이 가족변호사, 가족담당의사가 있는데, 가족 금융설계사 또한 50대 이후의 가장은 자신의 재정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8) 중앙정부 약해지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성장

정부공무원이 2012년까지는 조금 늘어나는데, 여기에 주로 증가하는 공무원은 공립학교와 공립병원 때문이다. 정부공무원 증가는 뜨거운 감자인데, 2012년이 되면 연방정부직원은 줄어들지만 주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이나 의료분야에서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 및 운영을 뺏어 오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 공무원이 17.5%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각 분야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은 감소하며 연

방정부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민간에게 아웃소싱하여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해진다. 중앙정부의 멸망은 여러 분야에서 점쳐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이나 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국가간 교역, 금융거래가 너무나 교묘하고 복잡해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게 물건을 팔고 사는지를 정부기관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수십 개의 국가와 은행에서 순식간에 사이버상 거래를 마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관세를 거두기가 무척 힘들어지며, 관세 또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지가 불분명해진다. 무역의존도가 70%(일본 20%)인 한국은 앞으로 내수 30% 정도의 세금만 확실하게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미래가 닥칠 수 있다. 이 금융거래의 혼란, 교역의 관세가 미래 사이버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기업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9) 종교와 NGO

정부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단체나 종교단체들은 15.7%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들이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27.6%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종교나 시민단체의 사회복지 제공인력이 뜨는 직종이 된다.

(10) 건설업

건설업은 15.1% 정도 성장하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낡은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운 도로, 다리, 터널 등으로 재건하는 SOC 산업의 요구가 높고 이러한 분야의 공공시설 증설에 많은 건설인구가 투입된다. 사람들의 구미가 새로운 것,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불편한 건물이나 주택을 좀 더 편리하고 자급자족되는 시설로 바꾸려는 욕망이 늘어나 건설업은 아직도 미래산업으로 남는다.

고령인구를 위해 자급자족되는 주택을 지어 밖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이 집에서 해결되는 첨단기능을 갖춘

주택이 유행할 것이며, 고령인구들이 도심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자녀들과 자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교외나 도심지에 소규모 실버타운이 설치되는 등 근교의 공기 좋은 곳에서의 전원주택이나 레저오락시설 속의 실버 타운이 유행, 이 분야에서의 건설 주문이 많아질 것이다.

(1) 인력공급업체

임시직, 기업채용, 비서직, 관리직, 기술직 일꾼을 찾는 기업에 필요인력을 즉각 공급하는 업체는 앞으로 일거리가 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노사갈등이 2010년으로 거의 끝이 나면 노조가 없어지고 각 개인은 언제 잃을지 모르는 직장에 대한 불안으로 인력공급업체에 이력서를 관리시키게 된다. 현재 18%정도의 근로자가 급성장하는 산업에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미국통계인데 다른 산업에서의 임시계약직이 10%정도인 것에 비하면 높다. 그러나 앞으로 부상하는 산업에는 임시 계약직이 많이 고용되며 이런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부상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예정이다.

2) 사양 직종

(1) 제조업

제조업은 1980년이래 성장을 멈추고 있고 2012년까지는 미미한 성장을 하겠지만 사양산업으로 10년 후는 2%까지 줄어든다.

생산직 근로자는 노동력의 필요성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식품가공처리, 기계제조, 용접공, 절단기술자, 납땜전문가 등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섬유가공, 봉제 등의 직종은 사양산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조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 제조업은 대부분 일자리를 아웃 소싱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최근에 미국의 외국철강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철강 관세정책은 사실상 미국 내의 값비싼 노동력으로 미국의 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2)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광업

이 분야는 2%정도 일자리가 줄어들며 기술개발로 인해 인력이 필요치 않게 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농업 임업에서는 대형업체가 뜨면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기업이 생기거나 농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제공 서비스업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18.4% 정도 증가하게 된다. 광업은 특히 11.8%정도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석탄 철광, 탄광은 38% 정도나 일자리가 줄어든다.

농업, 수산업, 임업 등에는 종래의 업종이 대거 없어지는 한편 새로 첨단기술로 무장된 직종이 늘어나며 특히 농장은 기계화된 사업체 운영자를 필요로 한다. 수산업이나 통나무 베는 직종 등은 각각 26.8%와 3.2% 씩 감소한다.

(3) 사무, 경영보조, 중간매니저

사무직 중 기업경영 보조, 즉 경영진 보좌 등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분야다. 최대의 직종으로는 공장 자동화, 사무기기 자동화를 통한 사무직원들이다. 앞으로는 사장이나 높은 직위의 사람도 비서 등이 없이 스스로 다양한 기기를 작동, 활용하게 된다. 워드를 쓰면서 타자수가 사라졌으며, PC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무직원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운전수가 필요 없어지게 되며 자동 네비게이터의 도움으로 경영인들이 스스로 차를 몰게 되거나, 자동차를 사무실 대신에 사용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되면서, 사무실의 공간이나 사무실 빌딩들이 감소하고, 도심 중심에는 지난 날에 멀리 떨어져 나갔던 실버타운이나 병원 등이 들어서거나, 첨단교육시설이 들어서서 평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된다.

(4) 은퇴자들의 헬스케어 혜택

2002년 미국통계에 의료보험 등 연금의 고질적인 적자로 인해 앞으로 은퇴하는 근로자의 헬스케어 혜택을 줄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여기에 조금 더 하면 은퇴자들의 의료보험도 위태위태 한 모양이다. 대기업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50%정도를 커버한다. 그러나 최근의 미래연구에 의하면 2031년에는 대기업이나 중

소기업에서 퇴직한 자사근로자의 의료보험을 10%만 커버해 준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로 인해 퇴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점차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국내에서도 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듯이 각국이 고령화 사회에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그 세금으로 연금을 받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금기관의 경영악화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영국이 지난해 73세로 은퇴연령을 늘린 것과 함께 서구에서는 퇴직연령을 70세로 늘리고, 55세-60세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며, 65세 이후에는 퇴직인구들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계약직으로 바뀌어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에 출퇴근을 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5) 사라지는 공장

공장이 사라지고 다시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는가? 미국의 경제역사가 조엘 목키르(Joel Mokyr, 2001)의 공장의 부상과 소멸(The Rise and Fall of the Factory System)이라는 논문은 기술개발로 인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이 헛간이나 창고에서 똑딱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2000년도에 조사한 결과다. 19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내수공업에 종사했다. 산업혁명으로 집에서 나가 공장에서 정해진 시간 즉 9-5시까지 근무를 하였지만 이제는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이나 창고, 차고로 옮겨오고 있다. 공장, 사무실 근무가 인간의 경제생산성, 근무형태, 사회조직까지 바꿨고, 농업을 농장으로 바꾸면서 삶의 질 향상도 이룩했다.

앞으로는 인간이 직장을 찾아 일터나 공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이동하고 사람은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인간이 원하는 제품 자체도 바뀌게 된다. 재택근무로 많은 차량구매가 사라질 것이며, 공장기계나 사무기기 또한 바뀌거나 가정용으로 변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종래에는 집을 떠난 노동자들이 상인이나 기업이 자체나 장비를 보급하면 공장에서 제품

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는 경제구조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이동의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하며 특히 장거리나 국제간의 통신 또한 저렴하여, 더 이상 비싼 비용으로 사람을 이동할 필요없이 정보를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경제가 바뀐다. 재택 또는 전원주택지역에 공장을 지어 장시간 출퇴근하지 않도록 하며 보다 유연하게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며, 아동양육 등도 근무지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변해간다.

(6) 출판업

인쇄가 전통적인 오프셋 프린팅에서 디지털기술로 가지 않으면 전통적인 인쇄소는 종말을 맞게 된다. 2000-2003년간 콘리가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쇄소 수입이 150억 불이상 감소하였고 순이익은 100억 불 정도 줄었다. 앞으로 10년 안에 1만 3천 5백 개의 인쇄소가 문을 닫게 되며, 4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170억 불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 인쇄가 미래라고 보았다.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자료를 DM하여 자동우편서비스를 해주거나, 정크 메일이라고 불리는 불특정다수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도 틈새시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세금 발급하는 용지를 인쇄, 투표용지 등을 인쇄, 기술매뉴얼이나 카달로그 인쇄 등도 시장이 남아있지만 인쇄업종은 사양산업임이 틀림없다.

(7) 평생직장

앞으로 평생직장(lifetime jobs)은 사라진다. 1990년대에 이미 나온 말인데, 평생직장은 과거의 말이고, 미국의 미시간대학이 운영하는 국립여론조사기관인 일반사회여론조사(General Social Survey:GSS)에 나타난 트렌드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감지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기관은 1977년 이래 평생직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 1997년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변화가 없고 미국노동성의 노동통계청의 1998년 통계에서 보면 25세 이상의 근로자가 1998

년 현재 한 직장에서 평균근무기간이 4.7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조사는 10년전 조사가 평균 5년 정도 되는 것을 볼 때 크게 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통계청조사에 의하면 한 직장에 연속근무연도를 평균 내면 서서히 그 연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때, 평생직장이 이제 종말이 온 것이 틀림없다. 미국노동통계청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옮긴 직장의 월급이 평균 20%정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직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도 더 높아지며, 22%정도만 전 직장보다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장을 옮긴 사람들 중 80%는 옮긴 직장에 더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62%정도는 자신의 경력에 두 번째 옮긴 직장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업구조 조정 기간 동안 많은 직장인이 자리를 옮겼는데, 더 많은 화이트칼라와 경력직이 재 고용 되었다. 결국, 평생직장이 사라진다는 특별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근로자의 우려와 불안에서 그런 결과를 추론할 수 있고, 근로자가 불안할 때 다른 직장을 찾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직종이 첨단기술발달로 그냥 사라지고 있으며, 고용안정과 취업은 인간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바로미터이며, 노사간 또는 경영진들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수평조직으로 국장, 실장제도에서 팀장제로 의사소통, 전결과정의 단계를 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책을 잃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8) 텍스타일, 패션, 의류산업

신소재 의류는 한번 만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추울 때는 더운 기운, 더울 때는 서늘한 기운이 나오도록 칩으로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옷감이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고, 패션 또한 인터넷이나 국제통신 온라인 화상서비스 등으로 지구촌 유행을 너무나 손쉽게 순식간에 감지하고 보고, 입을 수 있어, 너무나 다양한 패션 때문에 오히려 어떤 유행이 없어지거나 패션의 중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패션은 다분화 되어 매니아 또는

세대나 동호인들끼리 좋아하는 패션을 즐기는 등, 일반패션이란 컨셉보다 항상 틈새시장 패션 쪽으로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될 전망이다. 지구촌문화로 인한 각국의 전통과 문화가 혼동되고 다양화, 퓨전문화가 부상되기 때문에, 각국의 전통의상이나 문화가 국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호기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문화가 손쉽게 국내에 침투하여 유행을 바꿀 수 있거나, 문화를 혼합시킬 수 있다. 여기에 의류 패션산업에서 눈에 보이는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3. 호주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교육목표는 미래사회 배우는 것으로 - 중고등 교육과정에 '미래사회변화'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대부분의 서구 교육부 혹은 노동부처럼, 교육부 홈페이지에 "지는 직종 뜨는 직종"을 올려 국민에게 미래준비에 협력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2001년 연구결과인 '호주일자리 2005-미래 부상직업군'을 올려놓았고, 첫 연구는 1991년 즉 10년 전 '호주 일자리 2001-미래 부상직업군'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호주일자리 2010-미래 부상직업군'을 조사 중이다. 매 10년마다 부상하는 직업군을 연구하여 학생들의 미래준비를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 책임이며,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준다.

호주는 매 20-30년마다 직업군이 대부분 바뀌어 수많은 직종은 사라지거나 감소하고 새로운 직종이 부상함을 발견하였다. 호주는 '미래 직업군 트렌드' 발표 후,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경제변화, 산업구조변화, 노동시장변화를 분석하여 미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직업훈련, 기술을 바꿔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는 컴퓨터기술과 통신의 컨버전스에서 오는 다양한 새 직종의 훈련이 시급하다.

미래사회변화의 첫 메가트렌드는 국제화로 호주산업의 유럽 북미위주 수출시장으로부터 아시아시장 이동에 주력

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두번째 메가트렌드는 제조업의 동남아 이동과 2015년부터 아프리카 등으로의 이동으로 선진국 서비스산업이 확대된다. 금융, 건강, 개인관리서비스, 도매, 호텔 및 요식업의 확대이다. 제조업은 경쟁력이 심화되고, 단지 전기, 가스, 수자원, 교통산업은 증가하지만 호주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약화된다. 세번째는 고령화로, 고령노동력이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며, 더 많은 파트타임, 중년층 노동력 등이 확대된다.

늘어나는 직종은 첫째, 서비스업종과 고급기술 인력이다. 매니저, 전문직종, 준 전문직종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내수 소비시장, 건강 헬스케어 노인의료지원에 많은 신 직종이 생긴다. 두번째는 경쟁이 높지만 수출입산업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의 직종이 늘어난다. 첨단기술훈련과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직종이 늘어난다. 단순노동자나 기계조작 등의 일반노동력보다 호주의 내수산업증가로 기술노동력이나 서비스산업의 세 일즈맨이 더 많이 요구된다. 제조업의 기계작동, 단순노동력은 대부분 기계화 자동화로 사라지지만 10년 간은 호주는 퇴직자를 충당할 일자리에 구직이 가능하다.

변하는 산업에 따른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지난 10년보다 단순 기술 습득과정은 줄어든다. 1994년 고등학교졸업이 57%에서 2005년에 68%로 증가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교육 인구가 감소 중인데, 현 교육과정은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교육 인구증가에 맞춰져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호주정부는 국민들의 직업교육과 훈련으로의 급격한 이동과 성장에 주목하며 1997년까지 이 분야 교육과정에 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가 국민이 원하는 신기술 교육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직업교육과 훈련을 고등학교 과정에 반영, 국가교육목표로 잡고 1991년 연방 정부가 합의하여 (Finn 목표), 1994년에 직업교육이 22%, 2005년에는 26% 증가하였다. 직업대학(VET)에서 훈련시키는 많은 인

증서는 고령인구나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인구나 중 장년 인구의 직업재훈련 요구가 거세어져서, 교육부가 이에 적응하였다.

미래의 직종이 대부분 고급기술인력을 희망하여 교육부는 신 산업, 신 직종교육에 집중한다. 그러나 최대 메가트렌드인 세계화로 교육이 기회와 도전을 창출하기 위해 수출시장에 현존하는 상품과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인을 양성하지만 국제적 경쟁심화를 우려한다. 그러므로 전략에 관한 연구인력이 필요하며, 신기술과 발명과 서비스 개선, 혁신산업시장 확대, 경영, 구조변화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략분야의 직업 군은 품질과 생산성 강화, 조직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변화, 즉 미래산업, 서비스산업, 전략산업으로의 변화에 맞도록 교육의 전 교과과정은 변화하고 조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미래사회급변으로 미래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목으로 떠올랐다.

필·자·소·개

박영숙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을 거쳐 현재 주한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대학원 주거환경과 초빙교수, (사)유엔미래포럼/세계미래회의(NGO)/The Futures's 포탈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당신의 성공을 위한 미래뉴스」, 「미래예측 리포트」, 「NEXT JOB 미래직업 대예측」, 「유엔미래보고서 2005」(공저), 「2020트랜스휴먼과 미래경제」(공저), 「유엔미래보고서 2007」 등이 있다.